



연설문: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행동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김도현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를 비롯한 전 세계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외쳤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행동했지만, 돌아온 것은 '어린데 대단하다'는 칭찬, 그리고 '너희가 희망'이라는 무의미한 응원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외침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기특한 아이'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미래 세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겪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상이 됐고, 당연히 누렸던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여름이면 반복되고, 봄이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매일 마스크를 쓰고 등교합니다. 뚜렷한 사계절이 한국의 자랑이라는 말, 더 이상 저는 실감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피해보다 더 두려운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미래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호초를 연구하는 생태학자가 되고 싶다는 제 친구는 그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산호초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테니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진로 계획을 세워도, 저희가 꿈꾸는 미래가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기후변화는 저희 청소년들이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기후변화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어른들이 과거에 내린 무책임한 선택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소년들의 절박감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석탄발전소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계속 신규 발전소를 짓고, 해외 수출을 허가하나요? 재생에너지 비율이 3%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파리 협약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어떤 변명도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더 급진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국가가 석탄을 서둘러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청소년기후행동 동료들과 함께 세 차례의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청, 환경부, 청와대를 찾아가 저희의 요구사항도 전달했습니다. 학교까지 빠지며 거리로 나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계속해서 행동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저희의 나이가 아닌, 요구사항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 나오신 산업부장관님, 저는 더 이상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변화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외침에 응답해주세요. 청소년들의 외침에 응답하고, 지금 바로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